

No.2017022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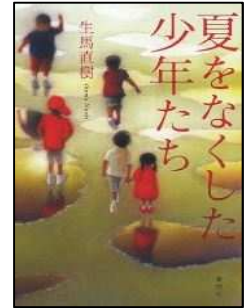
제목: 여름을 잃은 소년들

저자: 이쿠마 나오키

페이지수: 377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1월 20일



<내용소개>

제3회 신초 미스터리 대상 수상작 (신초사 주관)!

누구나 겪는 소년기,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비극적인 밤의 진실을 마주하다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은 애매한 시기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계, 신체와 정신의 성숙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발육이 빨라 체격이 성인과 비슷하거나 애늬은이처럼 너무 일찍 철이 든 경우도 있다. 몸과 마음의 성장이 비례하지 않기에, 아이들은 너무 다르고 예측하기 어렵다.

호평 속에 등장한 신예 작가, 이쿠마 나오키의 《여름을 잃은 소년》도 예민하고 섬세한 소년기를 주 무대로 삼는다. 도쿄에서 형사로 근무하는 주인공 '타쿠미'는 시체안치소에서 어릴 적 친구와 약 20년만에 재회한다. 시신으로 마주한 옛 친구를 보며, 타쿠미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니가타 현의 변두리에 위치한 시골 마을. 타쿠미는 발군의 운동능력과 외모를 가진 선망의 대상 '케이', 문제 행동을 일삼는 '유키마루', 바쁜 부모님 대신 4살짜리 여동생을 돌보는 '쿠니미'와 넷이서 뭉쳐 다닌다. 이들에게는 저마다 고충이 있다. 유키마루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도망갔고, 케이는 불륜을 저지르는 아버지와 그것을 묵인하며 사치를 부리는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낸다. 타쿠미는 자기보다 성숙한 케이에게 불안함을 느끼고, 쿠니미는 곤란할 정도로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여동생을 유키마루가 해코지 할까 걱정이다. 여기에 두 살 위의 선배 '세이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세이켄은 무슨 이유인지 케이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

사건은 타쿠미와 케이, 유키마루, 쿠니미가 맞이한 초등학교의 마지막 여름방학에 발생한다. 이웃마을에서 불꽃놀이가 열리던 날, 이들은 출입이 금지된 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쿠니미의 여동생 치사토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호기심에 시작한 모험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과 깊은 후회를 남긴 것이다. 그 날 밤 '여름'을 잃은 아이들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1부에서는 누구나 겪는 소년시절의 심리상태와 인간관계를 섬세하고 그려낸다. 이전엔 너무 어려서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며 혼란에 휩싸이는 시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2부는 현재 성인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다. 타쿠미가 시체로 조우한 친구의 사건을 말

게 되고, 20년 전에 있었던 치사토 살해사건의 진상으로 이어지며 수수께끼를 밝혀 나간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짜임새 있게 전개된다. 어마어마한 반전이나 충격적인 결말을 짜내려 무리하는 스토리 라인은 아니다. 주인공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작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 타쿠미와 친구들, 세이켄에 대한 믿음이 희망을 남기며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길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제 1부: 빛이 없는 산 / 안녕, 소년

제 2부: 재회 / 작은 배의 행방

<저자소개>

이쿠마 나오키

1983 년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2016 년 《여름을 잃은 소년들》로 제 3 회 신초 미스터리 대상을 수상하였다.

No.20170222-002

제목: 그리운 식당이 있습니다

저자: 니토리 고이치

페이지수: 30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2월 22일



<내용소개>

전통과 추억이 배어있는 작은 식당 & 대가족의 조합이 따스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본에는 몇 대에 걸쳐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과자점과 식당들이 많다.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식이 정해진 운명처럼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갈등을 빚어지기도 한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잠재된 드라마틱한 공간이므로, 장인정신이 빛나는 작은 가게는 소설과 만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도쿄 아사쿠사 상점가의 오래된 화과자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인기를 얻은 니토리 고이치가, 이번에는 변두리의 작은 식당과 대가족에 얽힌 이야기로 돌아왔다.

도쿄의 외곽, 쇼와시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미노와바시'에는 평판이 좋은 작은 식당이 하나 있다. 타니무라 집안이 대를 이어 운영해 온 이곳은 개성 넘치는 5형제가 할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 프롤로그 격인 '15년 전'에서는 어머니인 '시즈카'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섯 아이들을 소개한다. 성적이 우수하고 스포츠도 만능인 첫째 '레이', 독립심과 배려심이 강한 둘째 '슈이치',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착한 셋째 '유우지', 넷째 '산고'와 다섯째 '요시키'.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던 그녀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다.

큰 슬픔을 안고 생기와 빛을 잃어버린 타니무라 집안을 다시 일으킨 것은 장남 레이였다. 다른 가족들도 용기를 얻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온다. 슈이치는 아버지를 따라 요리인의 길을 걷되, 가업보다는 더 큰 무대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업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타니무라 집안에 또 한번의 시련이 찾아온다. 정체 불명의 여자가 레이를 찾아와 당신 딸이라며 아이를 두고 간 것이다. 장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식당 문까지 닫는다. 6살 소녀 '안'을 자기 딸로 인정하며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없던 레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돌연 집에서 사라져 버린다. 형은 실종되고 아버지는 드러눕고 여든이 넘는 할머니가 기어코 식당은 열어야겠다며 일을 하시는 통에, 슈이치는 갑자기 본가로 돌아와 형이 돌아올 때까지 식당을 맡게 된다. 소설은 슈이치의 음식과 가족의 역사가 깃든 식당, 조용할 날 없는 타니무라 집안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펼쳐진다.

식당 메뉴뿐 아니라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고로케나 안의 입맛에 맞춘 카레처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가정요리들이 등장하여 '가족의 끈끈한 정'을 따뜻하게 전한다. 음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재미도 있다. 소박하고 잔잔한 이야기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목차소개>

15년 전 / 튀김 옷이 바삭바삭 고로케 / 향과 감칠맛이 진한 카레 / 새로운 일본풍 디저트 / 육즙이 풍부한 가라아게 / 보물

<저자소개>

니토리 고이치

아오모리 현 출신, 도쿄에 살고 있다. 전격소설대상을 받으며 등단하였고, 소설 외에 게임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베스트셀러가 된 《변두리 화과자점 구리마루당》 외에 《도쿄 Bar가 간다》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70222-003

제목: 돈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현대 권력사

저자: 오오무라 오오지로

페이지수: 272

장르: 역사, 경제

출간일: 2016년 12월 09일



<내용소개>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이라는 두 축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는 역사&경제 교양서

세계사를 바라보는 척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제일 흔한 것은 몇몇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로 훑어 내려오는 것이다. 얼마나 세세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 학교 수업은 물론 대다수의 역사서가 이런 형태를 취한다. 새로 생겨난 역사 트렌드는 ‘각 시대를 하나의 전체적인 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목하되 각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이미지로 학습한다. 이 타이틀처럼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분야를 파악하는 관점도 있다. 저자 오오무라 오오지로는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돈의 흐름으로 배우는 역사 시리즈를 선보여 왔다. 이번에는 돈의 흐름을 따라 ‘힘’의 이동을 짚어봄으로써 복잡하게 전개된 세계 패권의 역사를 설명한다.

동서고금에 상관없이, 부(富)는 언제나 인류에게 가장 달콤한 미끼였다. 권력은 돈에 자연스럽게 붙으므로, 모든 정치의 이면에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사는 돈과 힘을 얻기 위해 벌인 전쟁과 다툼, 협정과 조약으로 가득하다.

책은 전체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영국이 세계의 지배권을 돈으로 샀다는 내용부터 시작된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며 그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까지 빼앗는 거국적인 해적행위를 벌였다. 7개의 바다를 지배하게 된 대영제국은 산업혁명도 빠르게 성공시키며 대량생산을 실현했고, 세금과 은행이라는 제도를 정비하여 전쟁비용을 조달했다. 파운드는 기축통화가 되며 세계 최초 금융제국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과학기술과 풍요로운 대륙을 경제력의 원천으로 삼아, 영국 다음 시대의 패권을 장악한다. 여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유행시킨 소련이 자원을 무기로 내세우며 미국과 대립구도를 만들었다. 아랍국가들은 ‘오일 머니’로 부흥에 성공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으며, 요 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유럽연합 EU의 발족과 내부의 위험 요인,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의 경제 테러 등을 짚어보고 이후 세계경제가 직면할 과제를 고민해본다.

세계사의 기본 뼈대 위에 ‘돈’과 ‘권력’의 축을 더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갖추고 있

다면 더욱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 지루하지 않게 식견을 넓혀줄 역사 및 경제 교양서로 추천한다.

<목차소개>

- 제 1장: 영국은 세계의 지배권을 <돈으로 샀다>
- 제 2장: 미국의 <금>과 <달러>에 세계가 굴복!
- 제 3장: 또 하나의 "자원대국" 소비에트 연방
- 제 4장: 아랍을 다시 부흥시킨 "오일 머니"의 위력
- 제 5장: 패전국 독일 <기적의 부흥>과 <고뇌>
- 제 6장: 미국을 위협하는 일본, 경제력의 원천은?
- 제 7장: 석유이권투쟁 - 아랍사회의 반란
- 제 8장: "제3의 경제협력" 중국이 눈뜨다
- 제 9장: 실은 <경제문제>였던 동서냉전의 결말
- 제 10장: <미국의 권력 복구>와 <시들어가는 일본>의 밀접한 관계
- 제 11장: 이슬람 국가의 배경을 <돈의 흐름>으로 살펴본다
- 제 12장: EU발족! 공통통화 '유로'의 야망은?
- 제 13장: 세계 최대의 부채 대국 <미국> vs. 흑자 무역 대국 <중국>
- 제 14장: 영국이 준비한 세계 최대의 "경제 테러"

<저자소개>

오오무라 오오지로

전 국세조사관. 국세국에서 주로 법인세를 담당하며 10년간 근무하였다. 퇴직 후, 비즈니스에 관련 자유기고가로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TV프로그램 감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모든 영수증은 경비로 뺄 수 있다》를 비롯하여 세금·회계관련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한편 학생시절부터 돈과 경제의 역사를 연구하며 별도의 필명으로 30권이 넘는 저작을 발표했다. '오오무라 오오지로' 이름으로 낸 역사 관련서로는 《비정하고 매력적인 켄의 세계사》를 비롯한 <돈의 흐름으로 배우는 역사>시리즈가 있다.

No.201702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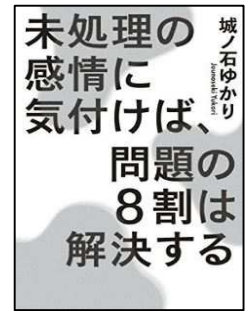
제목: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깨달으면, 문제의 80%는 해결된다

저자: 조노세키 유카리

페이지수: 248

장르: 심리,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1월 18일



<내용소개>

4ness로 자신을 컨트롤하며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감정’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지속되는 기분 상태와 그에 수반되는 생각들을 지칭한다. 기분은 일시적이지만 감정은 좀 더 길게 남는다. 며칠, 몇 주, 수년간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든 걸 잊고 잘 살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옛날의 사건과 감정 때문에 힘들어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 기계의 엔진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원활하게 작동하듯, 사람도 내면의 케케묵은 감정들을 해소해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은 방치되어 있던 감정들을 깨달음으로써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 저자는 대학을 중퇴하고 세계를 방랑하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찾아 나섰고, 심리학을 배워 활용해온 사람이다. 창업을 한 이후 사람들을 만나며 절감한 ‘정신 건강 케어’의 일환으로 ‘4ness 대처’를 전파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는 현재 닥친 고민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하우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설명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1장에서는 독자가 ‘처리하지 못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알린다. 스트레스를 고통과 동일시하며 피하려는 것은 그저 뇌의 버릇이며, 오히려 감정을 억제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2장부터 5장까지는 감정의 구조를 파악하는 ‘인지(Awareness)’ → 숨어있던 감정을 찾아내 인정하는 ‘용서(Forgiveness)’ → 용기를 내어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Mindfulness)’ → 위화감을 없애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일체화(Oneness)’ 즉 4개의 ness 과정을 차례로 소개한다. 관련 이론을 해설한 다음 다양한 각도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이해시키고, 과제를 수행하며 몸에 익히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자기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눌러있던 브레이크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므로 비즈니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등에서 괴롭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손에 넣게 된다.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외면해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그 순간만 모른척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본인도 모르는 깊은 곳에 숨어 오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덜어줌으로써, 더 홀가분하고 즐거운 인생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깨달으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제 2장: 감정의 구조를 알게 되다 - Awareness

제 3장: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발견하고 용서하다 - Forgiveness

제 4장: 직면화하여 받아들이기 용기 - Mindfulness

제 5장: 본래 당신으로 돌아간다 - Oneness

부 록 : <처리하지 못한 감정> 탐색 사례집

<저자소개>

조노세키 유카리

주식회사 ngoro-ngoro 대표이사사장. 1968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났다. 자신을 잃고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해매던 20세에 대학을 중퇴하고 세계를 방랑했다. 인도의 자원봉사 시설에서 마더 테레사와 만난 것을 계기로 <사람이 빛나며 풍족하게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귀국 후에는 심리학을 배우며, 아름다움과 마음을 다루는 에스테틱 살롱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정신적 카운슬링을 접목하며 인기 테라피스트가 되었고 1998년에는 후쿠오카 현에 주식회사 ngoro-ngoro를 설립하여 큐슈 지역에 6개의 지점을 냈다. 하지만 2만명을 넘는 사람의 다이어트와 미용을 서포트하며 본격적인 정신건강케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인지행동요법에 기초한 <4ness 대처(Coping) 강좌>를 시작했다. 4ness 대처(Coping)강좌는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첫 해에만 26기를 개최하였다. 유명기업의 사장과 기업가들이 수강하며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전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개인 세션 예약은 현재 1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기타 저서 <분노가 사라지면 살이 빠진다 Coping diet>가 있다.

No.20170222-005

제목: 자본주의의 한계

저자: 키노시타 에이조

페이지수: 168

장르: 경제

출간일: 2016년 08월 12일



<내용소개>

‘정(正)과 반(反)의 경제선’을 통하여 일본 경제 침체의 이유를 짚어보고 출구를 고민하다

1985년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등 선진 5개국 대표가 모여 ‘플라자 합의’를 맺었다.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 및 무역수지적자를 탈피하고자, 달러화의 평가절하 및 일본의 엔화·당시 독일의 마르크화 평가절상을 결정했다. 이는 당시 수출주도국이었던 일본에 ‘엔고불황’을 초래하면서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효과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찬란했던 성장세도 잠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비관적인 미래를 전망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찾아오며 찬란했던 성장기가 끝났다. 각 정부마다 위기를 벗어나려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경제상황을 ‘정(正)의 경제’와 ‘반(反)의 경제’로 분류하며, 일본이 처한 정체상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정의 경제는 ‘공급 < 수요’ 상태로서 호황도 불황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뒤쫓아 간다. 자금이 투입되면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공급이 다시 수요를 따라가며 균형이 맞춰진다. 반대로, 반의 경제는 ‘공급 > 수요’ 상태로서 그저 멈춰있는 정체 상태에 해당한다. 자금 수요가 있어도 설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줘야만 한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경제학의 한계란, 경제 이론이 그 시대의 정/반의 경제상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역사적 흐름과 함께 제시하며 현재 일본이 ‘반의 경제’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아무리 금융완화 정책을 펴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수요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류는 심각한 수준의 ‘반의 경제’를 만날 때마다 전쟁이나 큰 재해를 기회로 삼아 해결해 왔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나 재해를 고의로 일으키는 것은 금지된 시대다. 자본주의의 한계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이대로 반의 버블경제가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저자는 본래 공학을 전공하고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s Research; 경영관리문제에 과학적 방법으로 해법을 제공하는 것) 전문가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공학도이자 경제학자로 여러 연구를 수행해 온 저자는, 새롭게 제창한 ‘경제선’ 개념을 통해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고찰한다.

그의 30년 연구 성과가 압축된 책이자, 조금 어려운 듯해 보이지만 복잡한 수식 없이도 현재 경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교양 입문서이다.

<목차소개>

Chapter 1. 경제학의 한계

Chapter 2. <정(正)의 경제>와 <반(反)의 경제>

Chapter 3. <반(反)의 경제>와 양극화

Chapter 4. 미국의 한계

Chapter 5. 자본주의의 한계

Chapter 6. 되살아난 정책의 한계

Chapter 7.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그 후

<저자소개>

키노시타 에이조

1949년 교토 부에서 태어났다. 1975년 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를 수료하였다. 현재 메이조대학 도시정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통계획, 도시계획, 의사결정론, 서비스 사이언스, 거시경제학 등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다. 특히 의사결정론에서 지배형 AHP(Dominant AHP), 일제법(CCM)을 제창하였으며 거시경제학에서 새로운 이론(Paradigm)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 일본 Operations Research 학회사례연구장려상, 2001년 제6회 AHP 국제 심포지엄 Best Paper Award, 2005년 제8회 AHP 국제 심포지엄에서 Keynote Speech Award, 2008년 일본 Operations Research 학회 제33회 보급상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 4월~2007년 3월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겸임, 2005년 4월~2009년 3월 및 2013년 4월부터 메이조대학 대학원 도시정보학연구과 연구과장 및 메이조대학 도시정보학부 학부장을 맡았다. 《경제학은 왜 계속 틀리는 걸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세계공황》, 《통계학으로 배우는 빅데이터》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222-006

제목: French Style Simple Life: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저자: Mika Posa

페이지수: 205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7년 01월 06일



<내용소개>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프랑스인의 심플한 라이프

'프랑스' 또는 '파리'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올랑드 대통령이나, 이따금 벌어지는 이민자들과의 갈등 같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파리에 우뚝 서 있는 에펠탑, 맛있는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이 많은 미식가의 나라, 세계 패션의 중심지답게 심플하지만 우아한 패션 스타일 등이 먼저 생각날 것이다.

저자는 프랑스인의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 그 비결은 일상에 있다고 말한다. 파리에 산다고 해서 매일 풀코스 요리로 차려진 요리를 먹고 비싼 브랜드의 옷만 입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 화려한 프랑스 대신 매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프랑스를 소개한다. 저자는 파리에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며 현지 가정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에게서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발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 늘리지 않기, 돈 쓰지 않기,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다. 외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을 충실하게 지내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마구 사지 않고, 쓸모 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릴 것도 없다. 방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다.

본문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공간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만 조금씩 두기, 주방은 효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용하기, 무리하게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간결함을 인간관계로 확장하기 등의 주제로 꾸며져 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일용품을 쌓아두며 방치하지 않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나 귀여운 병은 장식품으로 재활용한다던가, 집에서는 와인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며 플리마켓을 자주 이용한다 등의 매우 구체적인 팁이 실려있다. 또한 옷과 신발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구입한다거나 고급 레스토랑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피크닉을 시도해 본다, 자녀와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키운다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힌트를 수록하였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갖고 살아가자는 요즘의 흐름에 제격인 책이다. 적절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밀도 높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40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생활공간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조금만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 일용품을 쌓아두지 않는다 / 아이들의 작품도 장식의 하나로 훌륭한 예술품 등)

제 2장: 효율을 고려한 키친 만들기&사용 방법

(식사는 One plate, 준비와 정리 시간을 단축 / 식기는 닦기 좋은 것으로 조금만 / 프랑스 빵은 끝이 나오도록 간단히 포장 등)

제 3장: 자연체가 낳은 프랑스 스타일의 아름다움

(메이크업 용품은 거의 사지 않는다 / 프랑스인은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 평상복은 청바지로 충분 등)

제 4장: 가뿐하게 살기 위한 산뜻한 인간 관계

(결혼식도 러프한 복장 / 선물을 마구 건네지 않는다 / 평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 등)

<저자소개>

MIKA POSA

도쿄에서 태어났다. 다니던 직장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OL에서 포토그래퍼로 전직, 2002년부터 파리와 도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2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아이들의 일상과 패션을 중심으로 촬영하였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Agnes B.에 사진 평가를 받고 해당 브랜드의 카탈로그와 파리 부티크의 포스터 등을 작업하였다. 그 외에 <JILLSTUART>, <Barbie>, <Repetto>, <디즈니스토어> 카탈로그와 해외 디즈니 리조트 가이드북, <Lexus> 프로모션 사진, 후지필름의 <세계의 아이들 달력>등을 촬영했다. 프랑스와 사진 등에 관한 워크숍에서 강사도 맡고 있다. 아동복지문화상을 수상한 《세계의 친구들, 프랑스》를 비롯해 《파리의 꼬마 발레리나》, 《파리의 아이들 스타일 노트》, 《여행하는 포토그래퍼》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222-007

제목: 손주 키우기 1학년생: 처음 하는 황혼육아

저자: 호다 아키코

페이지수: 128

장르: 육아

출간일: 2016년 12월 22일



<내용소개>

처음 '손주'를 키우게 된 햇병아리 할아버지&할머니를 위한 황혼육아 입문서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황혼육아 비율이 2015년 50%에서 2016년 63%로 급증했다. 그 세태를 반영하듯 '할마'와 '할빠'에 이어 '손주병'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20~30대에 하던 육아를 50~60대에 하려니 문제가 생길 만하다. 허리와 손목, 무릎 등 관절 질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스트레스가 갱년기와 겹치며 우울증으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자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시댁과 친정이기 때문에 육아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 괴로움과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책은 황혼육아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조부모들을 위한 입문서다. 자식을 키우는 것과 손주를 키우는 것은 다르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은 물론, 시대가 변하며 육아 상식과 가족관계도 변했기 때문이다. 힘들게 아이를 돌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육아라는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Part 1은 황혼육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훈련시킨다. 나이 들고도 쉬기는커녕 애나 봐야 한다며 푸념하는 게 아니라, 풍부한 연륜을 살려 가족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 말한다. 의욕만 앞서면 더 빨리 지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해야 한다. 또한 주 양육자인 아빠·엄마와 부 양육자인 조부모의 육아 방식이 다르면 불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로 어떤 유형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할 방법을 제시한다. Part 2는 임신부터 생후 2세까지, Part 3은 자립심과 사회성이 싹트는 3세~5세를 몇 구간으로 나누어 시기별 특성을 알려준다. Part 4는 초등학생 입학 후에 대한 내용이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의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조부모와도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Part 5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마지막 Part 6에는 손주와의 첫 대면부터 성인이 되면 전해줄 메시지까지 기록할 수 있는 추억 노트 양식을 수록했다. 각 항목이 간결하며 도표를 활용해 편히 읽을 수 있다. 보편적인 궁금증을 Q&A와 Tip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저자는 '손주 키우기'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황혼육아를 맡은 조부모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이 책은 조부모가 다음 세대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목차소개>

PART 1: 모두가 행복해진다, 손주 키우기의 마음가짐

PART 2: 생일까지 그리고 생일부터 1세, 2세

PART 3: 3살이 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

PART 4: 손주도 드디어 초등학생!

PART 5: 알아둬야 할 손주 키우기의 지혜

PART 6: 손주와의 추억, 손주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자소개>

호다 아키코

1968 년 생. NPO 법인 손주 키우기 닛폰 이사장.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주 키우기(황혼육아)와 육아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를 펼치며, TV 와 라디오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조부모에게 손주를 맡기는 현명한 100 가지 방법 - 조부모도 손주도 엄마도 모두 해피》, 《엄마와 아빠도 기뻐하는, 이 시대에 행복한 손주 키우기》등의 저서가 있다.

No.20170222-008

제목: 전 애플 재팬 인사부장이 알려주는 <성과를 내는 사람>의 업무 방식

저자: 코스기 토시아

페이지수: 20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1월 26일



<내용소개>

맥킨지 앤드 컴퍼니, 애플 재팬의 인사총무부장 출신이 알려주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원이 되는 길

요즘 대학생들은 바쁘다. 학업은 기본이고 학과 활동, 동아리 활동, 외부 단체 서포터즈, 각종 아르바이트, 스포츠 활동, 해외 인턴이나 어학연수 등을 경험한다. 직접 창업을 해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취직한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며 뭔가를 달성해낸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채용됐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 시절 얼마나 유능했는가와 회사에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가는 별개다. 학생 때에는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상사와 선배에게 매일같이 혼나며 위축되기도 한다. 그 사람 자체는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

저자는 맥킨지 앤드 컴퍼니, 유니덴 주식회사와 애플 재팬 등에서 인사총무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원, 직원의 채용과 계발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상대하며 느낀 바를 이 책에 담아 펴냈다.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평가 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평가하는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뀌므로,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할 것을 권한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평가 축은 비슷하다. 보유한 지식과 스킬 및 직무 경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 업무 실적과 결과인 '성과',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행동', 주위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인 '존재'의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에 따라 빠르게 성과를 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step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상사의 신뢰를 얻는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고 진심을 담아 대화한다. 매일 아침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하거나 괜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도 비결이다. 둘째, 사소한 것이라도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규모가 작더라도 상사의 지시를 받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다 보면 신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자율성을 잃지 않는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고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관계의 질→ 사고의 질→ 행동의 질→ 결과의 질>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습관과 힘들 때의 대처 방법은 별도의 장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자신은 왜 일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지, 엘리트들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지 못해 답답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전문가가 수많은 회사원들을 직접 만나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발견한 "유능한 사람의 업무 방식"을 공유한다. 보다 즐겁고 보람찬 회사 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빠르게 성과를 낸다

Step 1: 결과보다 중요한! 신뢰 쌓기의 기본

(본래 인격으로 마주한다 / 효율을 요구하지 않는다 / 아침에 One Action 을 계속한다 등)

Step 2: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잠깐 사이에 일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

(맹렬한 스피드로 아웃풋 한다 / 학습하는 힘을 추구한다 / 계속 성장한다 등)

Step 3: 하고 싶은 일만! 즐거워 건딜 수 없는 업무 방식

(스스로 선택한다 / 창업자 마인드를 갖는다 / 인사이동을 깔끔하게 받아들인다 등)

Another Step: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 성과를 끌어오는 작은 습관

(그 '누군가'가 된다 / 인간미를 주고받는 장을 만든다 / 건강은 '이타'에서부터 등)

<저자소개>

코스기 토시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NEC 에 입사하였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슬론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맥킨지 앤드 컴퍼니, 유니덴 주식회사 인사총무부장, 애플컴퓨터 주식회사(현: 애플 재팬) 인사총무부장을 역임한 뒤 독립하였다. 게이오기쥬쿠대학 대학원 정책·미디어연구과 준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특임교수 및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연구과 객원교수를 겸임 중이다. 저서로는 《창업가처럼 기업에서 일한다》, 《리더십 3.0~카리스마에서 지원자로》, 《열광해라》 등 다수가 있다.

No.20170222-009

제목: 모두 여름의 일

저자: 쿤 쿠미코

페이지수: 179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3년 06월 11일



<내용소개>

11살 소녀들의 잊을 수 없는 여름,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여름’은 종종 성장기에 비유됩니다. 동식물들이 여름의 맹렬한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해지듯, 인간도 자립심이 강해지고 부모님에게 안전하게 보호받던 환경을 조금씩 벗어나 다양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조숙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부터 사춘기에 들어섭니다. 가족보다도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나이지만, 아직 한참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오해를 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트러블을 겪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정신적으로도 한뼘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1살 소녀 ‘미츠키’입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미츠키는 엄마의 먼 친척인 ‘바닷가 아주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미츠키를 걱정하던 엄마가 부탁한 것입니다. 바닷가 아주머니는 해변에서 보트를 빌려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낯선 곳에서 방학을 지내게 된 미츠키는, 처음엔 그곳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해 마음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중 생긴 첫 친구가 ‘사야’입니다. 미츠키보다 한 살 아래인 사야는 공예점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지만 그들 한 점 없는 명랑한 성격 덕분인지, 미츠키는 사야와 같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유쾌하고 무엇을 하든 즐겁습니다. 수영 교실에서 평영 선수로 활약하는 사야에게 바다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이 바닷가 마을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전해듣기도 하면서 빠르게 친해집니다. 미츠키는 낯설고 새로운 친구와 생활이 즐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평화도 잠시, 미츠키의 엄마가 갑자기 이곳을 방문하면서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엄마와의 다툼, 또래 소년과의 만남과 자기도 모르게 품게되는 묘한 감정 등은 낯선 마을에서 방학을 보내는 미츠키 외에도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닷가 아주머니에게 오해를 품었다가 해소하며 신뢰로 이어지는 과정, 친구 사야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 같은 여러 사건들이 이 두 소녀를 웃기고 울리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곳곳에 유머가 배어있는 이 소설은 인간의 복잡한 마음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중심 인물인 미츠키와 사야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그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은 물론 그 시절을 지나쳐 온 어른들에

게도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정직하고 서툴지만 알고보면 바르고 강하게 살아온,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닷가 아주머니의 곁에서 미츠키의 여름을 함께 지내보길 바랍니다.

<목차소개>

바다의 역, 바다마을 / 친구 / 고무보트 / 태풍이 지나간 뒤 / 웃는 태양 / 에필로그

<저자소개>

쿤 쿠미코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여자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12세의 암호》로 제12회 일본아동문예가협회 신인상, 《태풍과 여름과 11세》로 제41회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여름의 왕》으로 제18회 히로스케 아동상을 받았다.

No.20170222-010

제목: 티롤과 사과나무

저자: 아라이 료지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0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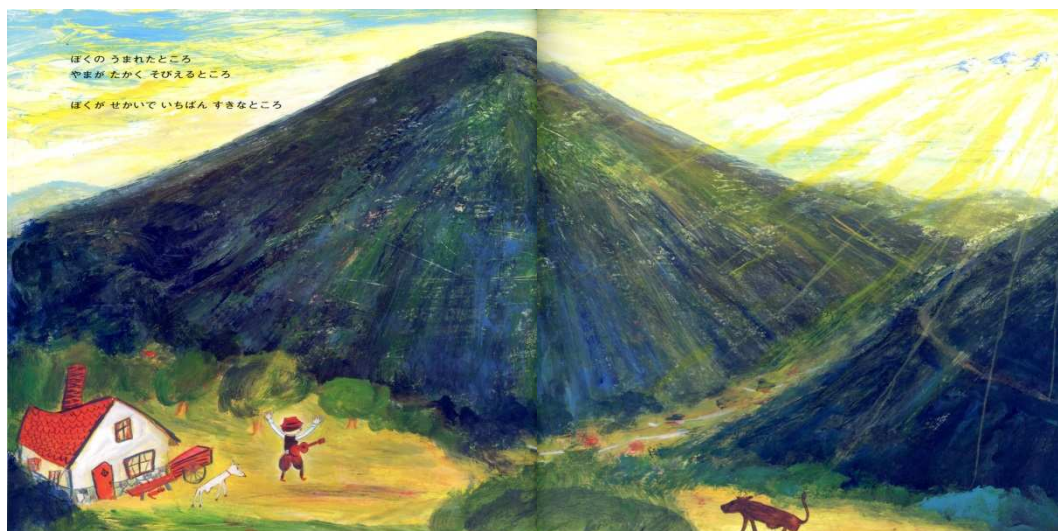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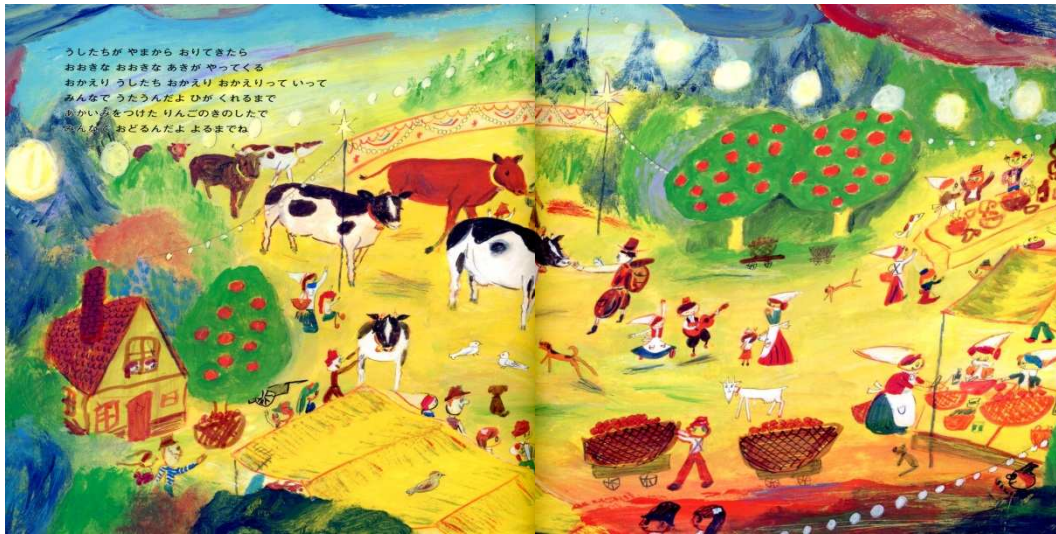
소년 티롤과 사과나무가 보내는 봄여름가을겨울 1년의 풍경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높은 산에 둘러싸인 마을. 소년 티롤은 자기가 태어난 이곳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연 풍경, 가족과 동물들, 소꿉친구인 소녀 에델 등 좋아하는 대상들이 모두 여기 모여있습니다. 티롤이 아침마다 올라 노래를 부르는 사과나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날 한 그루씩 늘어났습니다. 봄이 되면 산등성이에 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에델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숙제도 하고 동생들과 놀아주느라 바쁩니다. 여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소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며 산을 오릅니다. 티롤도 에델과 산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낮잠도 청합니다. 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가을이면 사과도 빨갭게 익어갑니다. 모두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겨울이 되면 조용히 내린 눈에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티롤은 에델과 가만히 그 모습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과 계절마다 바뀌는 산의 모습이 아라이 료지의 특색 있는 그림체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끼는 사과나무가 있는 이 곳은, 에델과 추억이 있고 가족의 생활터전이기엔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라이 료지

1956년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Refrain Refrain》으로 일본 그림책 상, 《태양 오르간》으로 JBBY상, 《아침에 창문을 열면》으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은 것 외에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특별상, 쇼가쿠칸 아동출판문화상,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일본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문학상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해피 아저씨》, 《오늘이라는 날》등이 있으며 만화와 음악CD을 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이다.